

‘대한민국의 선택’... 오늘 21대 대통령선거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D-day

광주 357곳·전남 806곳서 실시
오전 6시~오후 8시 투표 진행
최종 투표율 80%대 기록 관심
자정 무렵 당선인 윤곽 나올 듯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택의 날’이 밝았다.

팬데믹과 내란, 탄핵으로 무너진 사회·경제를 수습하고 첨예한 정치 갈등을 봉합하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국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외교안보 위기를 돌파할 리더가 3일 주권자의 손으로 선출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리더십이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렸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4295곳(광주 357곳·전남 806곳)에서 치러진다. 대선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광주 119만4471명·전남155만9431명)으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약 20만명 증가했다. 앞서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1535만2053명(34.74%)이 참여해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저조했던 영남·충청 등에서 본투표 참여가 결집되면,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이례적 보궐인 만큼, 본투표 마감 시간도 기존 오후 6시보다 2시간 늦은 오후 8시로 조정됐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 마감과 동시에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특수 봉인 처리 후 경찰 호송 아래 개표소로 이송된다. 개표는 오후 8시 30분께부터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시작, 약 7만여 명의 개표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대선부터는 ‘수검표’ 절차가 전면 도입됐다. 투표지 분류기 이후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한 장씩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으로 개표되며 관외 사전투표·재외국민·거소투표 등은 별도 구역에서 집계된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사진은 광주시선관위 홍보관에서 한 유권자가 전남일보가 캐릭터·일러스트로 제작한 투표 인증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오후 8시 10분께는 방송 3사(KBS·MBC·SBS)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진행되는 자정 전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당일 오후 10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튿날 오전 2시 ‘당선 유력’ 판정을 받았다. 선관위는 전체 개표가 4일 오전 6시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정치 위기 속에

서 치러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겪었고 지난 반년 동안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외교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속됐고 미·중 간 패권경쟁과 관세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커졌다. 대선 기간에도 후보자 간 네거티브 공방과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며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커졌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전남일보는 지난달부터 2일

까지 <제21대 대선 ‘호남 민심을 듣는 다’> 시리즈를 통해 유권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청년 △지방대학 △소상공인 △문화예술 △보건의료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저마다 대선 후보들에게 미래를 위한 당부의 손פת말을 들었다.

다섯 번째 유권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 정기호 강건의료원장은 “이제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행의 문제’로 국정 운영해야 한다”며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온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느냐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 국민 통합, 민생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을 국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3일 오전 6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선택의 시간이 열린다.

▶관련기사 2·3·4면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캐릭터 ‘투표 인증샷’ 열풍... 본보 20면에 ‘인증용지 시즌2’ 제공

사전투표때 대박... 인증사진 ‘속속’ ‘투표하는 보람’ 등 9종 추가 제작

전남일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에도 ‘투표 인증용지’를 제공한다. 사전투표 때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데 힘입어 본투표에서도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면에 ‘투표 인증용지 시즌2’를 마련했다.

시즌2에는 투표를 한 후의 보람과 뿌듯함을 표현하는 “투표 완료! 내가 대한민국을 움직였다”, “투표 마친 내가 이 시대의



챔피언” 등을 새롭게 제작했다.

앞서 전남일보는 5월 29일자 1면에 투

표 인증용지를 처음 선보였다. “세상이 안 변해? 그러니까 투표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투표했어”, “투표 안 한 사람, 나에게 연락도 하지마” 등 재치 있는 문구와 귀여운 캐릭터가 담긴 일러스트 9종으로 구성된 이 지면은 독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유권자들은 전남일보 인증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고 투표 인증 사진을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며 “이런 신문은 처음 본다”, “굿즈급 디자인”, “감다살(감 다 살아있네)”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해당 게시글은 SNS에서 2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리트윗과 공유 수는 1만 건을 넘겼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사전투표 당일 전남대학교 사전투표소에서 전남일보 인증용지를 활용해 학생들과 함께 인증 사진을 찍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SNS에서는 투표 인증샷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 기표소를 배경으로 한 전통적인 인증샷뿐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민 인증 이미지, 독특한 피켓이나 소품을 활용한 사진 등이 다채롭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투표 참여를 개

성 있게 표현하고, 그 의미를 주변과 공유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일보가 제공한 투표 인증용지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맞물리며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일보의 투표 인증용지는 전남일보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제공돼 누구나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에 투표한 뒤, 인증용지의 한글 모음 ‘ㅇ’자가 비어 있는 곳에 기표를 해서 단어를 완성시키면 된다.

정성아 기자 sangaja.jeong@jnilbo.com